

‘부실·적자 덩어리’ 농업법인 정비 급하다

2019년 기준 광주·전남 4187개
 종사자 수는 전년비 4854명 감소
 몸집 불리기...매년 수백개씩 늘어
 전남 3654개중 40% 적자 허덕
 연 매출 1억 안된 법인 수도룩
 생산·비생산 차별화 등 대책 시급

지난 2019년 기준 광주·전남 농업법인은 4187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종사자 수는 전년보다 485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부실 법인 증가와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농업법인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 지원 측면에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법인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지역 농업법인은 광주 374개·전남 3813개 등 4187개로, 관련 통계를 낸 2000년(668개)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농업법인은 전년에 비해 광주 45개·전남 200개가 증가했다. 지난 2000년 668개였던 광주·전남 농업법인 수는 이후 9년 동안 600~800개 안팎을 맴돌다 지난 2010년 1723개로 평년의 2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지역 농업법인은 1989개(2011년)→2446개(2012년)→2720개(2013년)→2960개(2014년)→3481개(2015년)→3589개(2016년)→4118개(2017년) 등으로 14년 연속 증가해왔다. 지난 2019년에는 전년(3942개)보다 245개 증가한 4187개로 최다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같은 해 법인이 245개 늘어날 동안 광주·전남 종사자 수는 무려 4854명(광주 173명·전남 4681명) 전년에 비해 급감했다. 법인당 종사자 수도 광주는 5.5명에서 4.3명으로 줄고, 전남은 8.9

명에서 7.2명으로 감소했다. 전년에 비해 종사자 수가 감소한 사·도는 전국에서 전남과 광주, 제주, 세종, 경북 등 5곳 뿐이었다. 이 가운데 전남 감소율이 14.6%로 실업난이 가장 심했고, 광주가 9.6%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고령화된 농촌에 청년을 유입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농업법인이 고용난을 해결하지 못한 데는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부실 경영’과 연관 있다. 우리나라는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0년 농업법인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부실 법인 증가, 목적 외 사업 영위,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농도(農道) 전남의 농업법인 평균 연매출은 12억900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5000만원 넘게 모자랐다. 17개 사·도 가운데 강원(8억2200만원)과 울산(10억17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적다. 전남 결산 법인 3654개 가운데 39.4%에 달하는

1441개는 적자를 냈다. 연 매출이 1억원을 넘지 못한 법인도 1472개로, 전체의 40.3%에 달했다. 광주 법인당 평균 매출은 24억800만원으로, 서울(41억9600만원), 대전(28억7600만원), 대구(27억5000만원), 경기(26만5000만원)에 이어 전국 5번째를 나타냈다. 적자 법인 비율은 22.9%(336개 중 77개)였고, 22.3%(75개)는 매출 1억원 미만 법인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날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마상진·안석·김유나)를 내고 농업법인 제도와 지원 정책, 농업법인 현황 및 경영 실태를 분석하고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법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마상진 선임연구원은 “기존 농가를 법인화하고 고령 장원을 통한 유입 활성화로 농업법인의 질적·양적 내실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농업 생산 법인과 비생산 법인의 차별화된 육성을 위해 지역 거버넌스(민관 협의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KJ카드 ‘가정의 달’ 경품 행사

10만~30만원 이상 이용 고객 대상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이 KJ카드를 10만~3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가정의 달을 맞아 광주은행이 마련한 ‘가(家) 마니 정(情)’이 이벤트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KJ카드 가맹점에서 개인카드 30만원 이상 이용하면 추첨을 통해 1등(1명)에게는 의류 관리기를 준다. 2등(5명) 공기청정기, 3등(10명) 에어프라이어 등 경품이 있다.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 주말 중 개인카드로 백화점, 대형할인점, 주유소, 음식점에서 합산 30만원 이상 쓰면 총 100명에게 아이스크림 교환권 2만원권을 준다. 또 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이용

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명에게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스키야크스 일일 이용권을 제공한다. 행사 응모는 광주은행 누리집(kjbank.com)이나 스마트뱅킹, 모바일웹뱅킹,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외 이달까지 광주은행 학생증 체크카드를 이용한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도 진행한다. 김재중 카드사업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KJ카드에서 준비한 5월 가정의 달 이벤트로 함께 정을 나누는 5월이 되길 바란다”며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및 상품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어버이 날 선물 ‘효도 신발’ 어때요 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3층 ‘바이네르’ 구두 매장에서 발바닥 충격을 흡수하도록 한 여름용 샌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 매장을 포함한 구두·의류 매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7일부터 9일까지 ‘사랑과 감사 효(孝) 대전’의 하나로 할인전과 시은행사를 벌인다. <롯데쇼핑 제공>

전남도 에너지신산업 상용화 프로젝트 사업

중소기업 기술·제품개발 지원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 에너지신산업 상용화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신산업 상용화 프로젝트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으며, 전남지역 에너지 중소기업에 상용화가 용이한 기술과 시장성이 높은 고성능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까지 ‘천일염 생산 병행 태양광 발전 상용화’ 등 9개 기업에 상용화 연구과제(R&D)를 지원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고 직접지원 성격이 큰 시제품 제작을 지원해 50개 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도왔다. 올해는 1개 과제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하며 연구 기간은 최장 2년이다. 과제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연구비의 20%를 부담해야 하고, 지원금 2억 원당 1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도내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7개를 보유 중인 중소기업 또는 입주 확약 중소기업이다. 산학연과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 가능하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오는 10일까지 사업 주관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전남 에너지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 조사를 통해 사업과 매출액 달성 목표를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자율 청렴목표 세우고 평가 한전 ‘청렴 매니페스토’ 도입

한국전력은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청렴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을 평가받는 ‘KEPCO(케이코) 청렴 매니페스토’ 제도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한전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최영호 상임감사위원과 각 본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청렴 매니페스토 체결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알렸다. ‘매니페스토’는 선거 입후보자가 공개적으로 공약을 선언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받는 제도를 말한다. 한전은 매니페스토 제도를 청렴문화 제고 활동에 적용한다. 자율적으로 반부패를 개선할 과제를 세우고 실천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방침이다. 한전의 전국 사업소는 불공정 규제완화, 부패유발요인 제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지역사회 상생협력 등 4개 분야에 대해 청렴 실천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참석자들은 공약서에 서명하고, 사업소별 공약과제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한전은 매니페스토 관리 시스템을 개설해 직원 누구나 과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분기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최 상임감사위원은 “매니페스토 제도를 한전이 공기업 중 최초로 청렴활동에 도입하게 됐다”며 “한전의 자율적인 청렴 실천력을 강화하고 청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 ESG 평가 반영 국내주식 위탁운용기관 선정 13일까지 운용사 신청 접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ESG 평가항목을 반영해 국내주식형 위탁운용기관 선정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로 사회책임투자형 2개, 성장형 4개, 인덱스형 3개로 총 9개의 정규 위탁 운용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1차 정량평가로 일부 운용사를 선별하고 2차 정성평가 등으로 최종 위탁운용사를 선정, 오는 6월 중순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정량평가는 재무안정성과 운용신뢰도, 운용성과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2차 심사대상기관 3배수에 대해 현장실사와 정성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선정에서는 환경·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ESG 평가항목을 신규 도입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누리집(tp.or.kr)과 금융투자협회(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사회책임투자형 2개사, 성장형 2개사 총 4개 위탁운용사를 선정해 운용사별 250억원씩 약 1000억원을 투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불안한 금융상품
안전성없는 주식투자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익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1억 투자시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1억투자시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원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